

산림청, 라오스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센터 개소

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(현지시간) 10월 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‘한-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(REDD+) 지원센터’를 개소했다고 밝혔다.

이날 임상섭 산림청장은 린캄 드영사완(Linkham Douangsavanh) 라오스 농림부 장관과 함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(REDD+) 지원센터(이하 지원센터)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한-라오스 협력사업의 시작을 알렸다.

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라오스 농림부와 함께 탄소감축사업의 이행현황을 직접 관리하며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산림보호 활동과 지역주민 대체 소득 발굴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게 된다.

임상섭 산림청장은 “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”라며, “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(REDD+) 사업을 통해 양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제산림협력관	책임자	과 장	장민영 (042-481-4080)
	해외자원담당관실	담당자	사무관	이우섭 (042-481-4088)